

재발성 자연기흉에 대한 정중액와 개흉술과 비디오흉강경수술의 비교연구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이정삼·조상록

정중액와 개흉술 및 근래에 많이 시술되는 비디오흉강경수술은 기존 개흉술과 달리 덜 침습적인 수술방법으로 절개 창상이 작으며, 수술 후 동통, 무기폐, 창상감염, 출혈 등이 적고, 입원기간이 단축되며, 미용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일부 흉부질환에서 선호되는 시술이다. 보라매병원에서는 기존 개흉술중 덜 침습적인 수술요법으로서의 정중액와 개흉술 30례와 비디오흉강경 수술 30례를 연령18세에서 25세사이의 재발성 자연기흉에 대한 임상례에서 비교연구 하였다. 1992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83명의 기흉수술환자중 18~25세사이 30명에 대한 정중액와 개흉술그룹(I)과 1994년 1월부터 1995년 8월까지 101례의 비디오 흉강경수술중 56명의 기흉수술에서 18세부터 25세사이 30명 그룹(II)을 비교검토하였는바 1) 수술전 흉관거치기간은 I군은 2일에서 15일(평균 4.69 ± 2.72 일), II군은 2일에서 12일(평균 4.60 ± 2.87 일)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, 2) 수술시간은 피부절개부터 피부봉합까지 I군은 40분에서 150분(평균 84.79 ± 21.70 분), II군은 58분에서 120분(평균 108.82 ± 42.02 분)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($P < 0.0001$), 3) 수술후 24시간 흉관배액은 I군에서 65ml부터 400ml(평균 220.76 ± 106.73 ml), II군에서 70ml부터 320ml(평균 260.63 ± 233.18 ml)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, 4) 수술후 24시간 요구된 Tarasyn[®] 진통제 용량이 I군은 0앰플에서 5앰플(평균 1.38 ± 1.32 앰플)이며, II군은 0앰플에서 4앰플(평균 0.72 ± 1.02 앰플)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($P < 0.05$), 5) 수술후 흉관 거치기간은 I군은 3일에서 17일(평균 5.45 ± 3.09 일), II군은 2일에서 14일(평균 4.75 ± 3.1 일)로서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. 6) 수술후 사용한 자동봉합기는 I군은 0개에서 3개(평균 1.31 ± 0.06 개), II군은 0개에서 11개(평균 3.41 ± 2.37 개)로서 통계적 의미가 있었다($P < 0.0001$). 7) 수술후 합병증은 I군에서 12일 이상 공기누출이 2례 있었고(6.6%), II군에서는 없었다. 8) 수술후 기흉재발율은 I, II군 각각 1례씩 있었다(3.3%).

이상의 비교검토결과 18세부터 25세사이의 재발성기흉환자에 있어서 비디오흉강경수술요법은 정중액와 개흉술에 비하여, 통계적으로 의미있게, 수술시간이 길고, 자동봉합기사용량이 많고, 수술후 진통제 사용량이 적었으며, 나머지 상기비교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.